艶魔 (51)

連載小說

徐東山 作
金奎澤 畵

김서방 1

현○록한 사나이—인제는 우리도 그들 그의원흉대로김서방이라고 부르기로하자— 김서방은 먼—하니고개를좌우를 흔들면서

『모르겟서요』

하는것이다

『몰나? 붓잡혀갓든데를 못잡혀갓든 당자가 몰나?』

영호에게는 모른다는 김서방의 대답이 고지듯니지가아니하엿다。

『네……갈때는 정신이업시갓섯고 도망할때는 내빼도거던는 나왓지만 원체 서울에발이 서데다가 밤이돼서』

그러라면 혹 그럼직도 한말이다 그러면 어떠케하나

『광화문압 전차네거리로나온것은 알겟서요』

영호가 생각하고잇는것을보고그도 자긔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재료를 제공한다

『—놉흔데다 지은 큰 벽돌집인데……서울장안이 환히내려다뵈구……』

영호는 듯고잇다가 이러나옷찻게하엿다。

김서방은 한동안 서서 둘너보다가 절둑절둑 걷어간다 제신국뒤로해서 개천을 미어가지고 새로 낸 큰길이다 그것을보영호는김서방을끌너데우고큰길을 그대로 달니엇다 더 생각하거나 차를 필요도업는것이다

오목이가 문제의 감찰업는 일력거를 발견한것이 누상동 큰거리라고 햇스니까 그리면 인제는 언덕우에 지은 큰집만차저내이면 그만이다。

큰길 끗까지 다달엇다。

이근처에는 인왕산밋 언덕바지에 만흔 문화주택들이 새로들어서잇다。

그러니 그 어느것이 김서방의말한 서울장안이 환히 내려다보이게 놉흔데지은 큰 벽돌집인지 분간해내기가어렵다

영호는 잠간 망서리다가 감작히 김서방을 손을 잡어끌고 어두운 골목으로드러갓다 이리저리 굽으러저 다시 뭐은 언덕길을 올나가게되엇다。

『여깁니다』

서워선 김서방의 다리의상처를손대어주엇다

란환이 스치고 지내갓슬뿐 그다지 큰상처는 아니엇섯다

때는발서 세시가 지낫스나 영호는 유여치 아니하고 김서방을 데리고다시집을나섯다 집을 나시면서 영호는 변장할것을이저바리지아니하엿다 얼골모습을 조곰 고치고감장『쓰메에리』양복을입고 모자까지 운전수모자를섯다。

김서방은 시골사람처럼 조선옷을 푸시시하게 입히고그러고 병자처럼 보이게하느라고 단장을 손에 들니엇다。 압호기도 하려니와 미상불 단장을 의지하여 절눅거리며 칭게로 내려가는 꼴은 그럴뜻하다。

몸에 제각금 독와사품푸와 회중전등을 숨기고 또 저편이피스톨을 함부로 쏘는줄아는지라 영호가 전에 고심하여 구해둔 바탄(防彈)조끼를 하나씩속에 입기를 잇지아니하엿다。

이만하면 준비는완전무결이다。저편에도 용이히 간파를 아니당할뿐아니라 파출소가튼데서 취체를 당하더래도 운전수면허증까지 빌녀온터이니 드집잡힐일이업는 운전수요 손님이다。

자동차로 위선 광화문네거리에 당도하엿다。

김서방을 안세여노코 방향

김서방은 비로소 알어내이고 영호에게 가만히속삭인다 세상사람이 다 아는 ×별장이다。

영호는 오목이가 누상동거리에서 일력거를 발견햇다고 할때부터 이×별장을 마음속에생각하엿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한 가정에 지나지못하엿다。

그런데 김서방이 이길로 인도를하겟다 또 서울장안이 환히 내려다보이는 큰 벽돌집이라고 햇스니 그러면 이집밧게는 달른집이 잇슬리가업는것이다—만일 김서방이 자긔가감금당하여잇든 방의모양을 어쩌지 짓다가 말는것갓더라고 까지만 미리 말햇서도 차저내이기는 더욱 용이하엿슬것이다。좌우간 빈집이겟다 지하실이잇겟다해서 악당들에게는 안성맛집이다。

두사람은 구두를버서 길엽헤노코 조심조심 언덕길을 다올나갓다。

뒤다란 정원이 나서고 그뒤로는 그야말로 큰 벽돌집이다。 외인편으로 도라가면 지하실로 내려가는 칭게다。

두사람이 막 집모퉁이를 도라설때에 지하실 칭게에서 시컴언 그림자가 쑥 나와가지고는 이편으로 드라서다가 주춤하고 말을 멈춘다

그의 손에는 큼직한 꾸럼이가 들니어잇다。

八月四日밤부터（但日曜日五日은晝夜二回興行）
連日連夜滿員謝禮
新興黃金座納涼大公演特別週間
朴英鎬脚色
怪傑 林巨正傳 一幕二場
不朽의快傑林巨正、
朝鮮이나흔不朽의快傑林巨正、黃金座와新興朴英鎬의脚色名〃공피〃로期待의버서지안는巨傑林巨正傳을展開합니다。
—幕間—
獨唱 李眞順、朴丹馬、白波
단센스 李福本、盧載信、全數希、不死佛
舞踊 金小波、盧載信、李貞子
—黃金座音樂스·뻔드演奏
文藝部組
家庭劇 家庭敎師 全一幕
近近中!!—四年만의復活新築된劇團演劇市場이網羅되는陣容과名裝을로여러분압해나오라합니다
—만흔應援을주십시요—
仁寺洞 電光三六 朝鮮劇場

當ル四日封切
噴!!岡田時彦君!!第二回週種映畫會에投げる時代映畫美男尾上菊太郎主演華作篇!!同時封切의
大衆ツッピンス週間!!
新興キネマ新春六大作品の一
福岡日日·新愛知新聞連載
原作 白井喬二の名作
監督 松田定次
藤三行狀記 全拾三卷
美男尾上菊太郎主演
助演 荒木忍、春路謙作、松本田三郎、歌川八重子、五十鈴桂子
渾直の馬の大友藏三郎が武士道の塊れと戀情とそして仇討のひしめく萬花幽獄に血ぬる鮮烈!!
興味滿點の大衆映畫です。
新興キネマ超特級現代劇
新興入江プロ合同製作
原作 泉鏡花
監督 溝口健二 快心の傑作
脚色 東坊城恭長
美術 東坊城光長
瀧の白糸 全拾五卷
故岡田時彦、入江たか子主演
沖悅二、菅井一郎、瀧鈴子、見明凡太郎、浦邊粂子共演本邦映畫史上に燦然と輝く一大金字塔
『瀧の白糸』は全國到る處大好評の渦を捲き起し連日連夜、滿都封切の際は滿員に次ぐ超滿員の文字通りの立錐の餘地もない、三三年度中最高の傑作篇!!
永樂町一 電本三二二 中央館

涼味萬斛! 八月三日브터納涼大公開!
유니버-살特別提供 連續大冒險篇
空中幽靈 全二十四卷中 四、五、六篇六卷上映
猛獸롱대이라─氏決死의飛躍!
월니암대스몬드氏助演
第四篇……空中亂鬪
第五篇……無電操縱의偉力
第六篇……美人의誘拐
奇怪凄慘을極한幽靈號의自動車와의決死의爭鬪！二八處女를中心으로無電의偉力은蒼空萬里에번더겨거린다前篇을凌駕할超人的死鬪의幕은열니려한다
R·K·O會社超特作演藝映畫
매리안C쿠바─氏製作
킹그콩그 全十二卷
후에이래이
부루스카봇드氏 主演
로바─드암스트롱그氏
次週豫告
空中幽靈全二十四卷中七、八、九、六卷上映
도노반킷도 乞期待
貫鐵洞 電光三九五 優美館

두통과치통에
노─진
赤包의두통藥 第一藥房

八月二日當常大公開
歐洲映畫全盛時代に送る獨逸藝術映畫二名篇!!同時封切!
上映順
漫畫 お猿の三吉突擊隊 一卷
モツアルトの幻想 一卷
獨逸トビス特作日本版
監督鬼才アレキシス・グラノフスキ
主演アルベート・モーグ
人生謳歌 七卷
人生は水の流れだ!!音樂のメロディだ!! そこには平和な小波があり又險しい溪流がある。
獨逸ウファ超特作日本版
監督ハンス・ヒンリツヒ
主演ハンス・アルバース
勝利者 九卷
『會議は踊る』の優美!!『モテンカルロ』の豪壯!!更に捧ぐウファ音樂映畫の粹!!『勝利者』!
明治町一 電本一 浪花館

七月二十九日밤부터
刷新된同人들과新作脚本
◇藝題每日交換
◇八時半開演

本社直屬劇團
新舞臺南鮮巡廻
大邱夏期訪問 大公演
大邱劇場에서

在來習慣인公演初日人力車로俳優一同의町廻는廢止합니다
不日上京中央夏期納涼公演
新築中
團成社 電光（九五九）

머리감는
花王シャンプー
머리속까지 쏙씻기엿다…
머리털깨끗한것! 마음깨끗한것!
싹싹안 부벼도손쉽게 씻게저、빨이말은 花王シャンプー(화왕샴푸)는 땀차기쉬운요새손멜수업는洗髮料입니다
一個五錢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夏の胃腸病
食慾不振 常習便秘に
サロミン
一ヶ月分 一円五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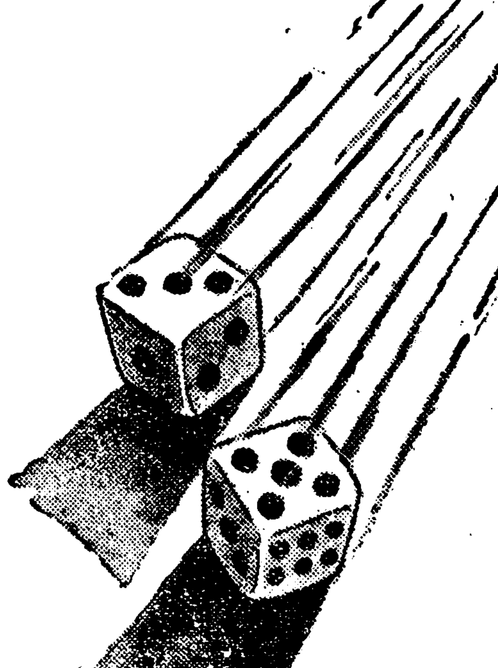
都賣散賣
鑛山用藥品
工業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藥品
有名賣藥
京城府鐘路四丁目 電車交叉點
山崎仁壽堂
電光化門二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ランラン(란탄)…
ポマード(포마도)
大平.55 小平.33

資本金壹千萬圓
各種信託
低利擔保貸付
朝鮮信託
朝鮮京城
(營業案內呈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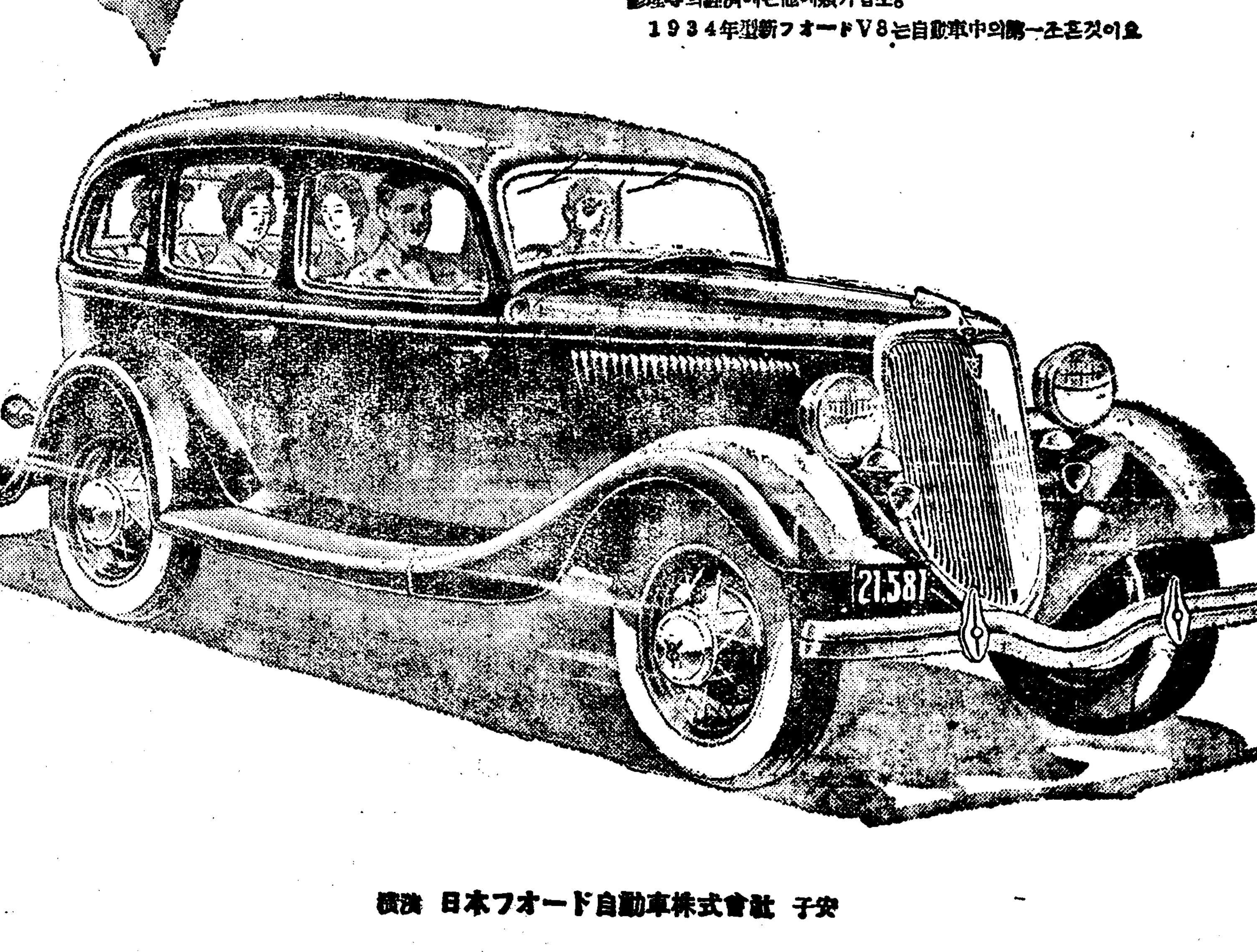
五十歲精力의防牌 オセロ(오세로) 잇다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光二四九番

僥倖은 미들수업소
8氣筩은 增加될뿐이요



	1928年	1934年
4氣筩車의數	13種	3種
6氣筩車의數	66種	13種
8氣筩車의數	21種	30種

世間風潮에따라서自動車를求하시면틀님업소。8氣筩보다적은氣筩數의車는舊式이라말할때가곳옵니다。
그理由는V型모타—는가장效率잇는設計로。自動車。飛行機 모타—보—트等의 世界記錄을樹立식힌것은다—V型모타—를裝置하여잇는關係요。또廉價級車는만히는他型을使用하고잇스나高級車의 거위全部는 다—V型모타—를使用하엿소 이事實에비추워 フオード는 效率의偉大한V型모타—를使用하엿습니다。
フオード는高級車中에서車室이第一널고。탈갓은爽快하오 그리하야フオードV8의까소린과오일의消費。減價率。손질修理等의經濟에는他에類가업소。
1934年型新フオードV8는自動車中의第一조흔것이요



橫濱 日本フオード自動車株式會社 子安

河川改修의完備等 水害根本對策陳情

今番에悽慘한被害를닙은 慶南道民有志上京

경상남도민대표오인은 삼일에상경하야 총독부당국에대하야 수해대책에대한 진정을하엿다는데 진정서의요항은 다음과갓다

一、락동강(洛東江)개수계획의재검미에관한것 二、지방하천의개수공사를급속히 실시할것 三、수해지방간선도로의근본대책 四、재해지방지선도로의개수실시의건 五、철도의개량공사실시에관한것 六、재해복구공사의급속실시

동으로 특히락동강일천식공사의 불완전과중요철도선로의 개량문제에대하야는 세간에서도 매우비난이만흔터인바 이에대한총독부당국의 처치가주목된다

災害應急復舊 一千萬圓이必要

于先總督府會計豫備費에서 二十萬圓만을支出

이번삼남지방일대의대수재는 인축의피해와 농작물등의 피해가막대하야근래에보지못하든참담한상태를보이고잇는데남부조선목도만약 리재민이 실로십삼만여명에달하며또재해지의피해총액은약오천만원의거액에달하는데 응급적복구비로 도로교량철도수리조합등복구비가약일천만원이나 필요한바 총독부당국에서 이복구공사에 착수하기는대개십일월부터나시작할터이라는바 극히 긴급한재해복구비로먼저 제이예비금에서 이십만원을지출하게되엿다한다

東京同胞들이 救濟會組織

위문전보보내

동경에잇는 동포들은 이번남조선수재와 비보를듯고 그저잇슬수업다하야 신전구원락정(神田區猿楽町)이정목 사번지에남조선수해구제회(南朝鮮水害救濟會)를조직하고 동정금품을모집하는중인바 이일에는 본사에다 음과가튼 전보를 띄엇다

대수해의 리재동포를 동정하는충심으로 위문하는돈을 귀사로부터 일반 리재동포에게 전달하야 주기를 위탁하노라

東京神田猿楽町二丁目四番地 南朝鮮水害救濟會

東京의三團體 義捐金募集

各方面으로活動中

【東京】 동경잇는 흑우련맹(黑友聯盟)과조선일반로동조합(朝鮮一般勞働組合)동흥로동조합(東興勞働組合)등삼단체의련합으로 금반삼남수해 구제금을 모집하기로되여 벌서 본소구록정(本所區綠町)사정목에그사무소를두고방금맹렬 히활동중이라

職業婦人協會에서도活動

남조선 수재동포의 구제금품을 조선직업부인협회(朝鮮職業婦人協會)에서모집중인데 접수는 시내 종로에잇는 야소교별관안에잇는 녀자농촌사업부(女子農村事業部)의 박인덕(朴仁德)씨 기한다는바 유의하신 직업부인들의만흔 성원이잇기를 바란다 고한다

母親의責妄듯고自殺한子息

고양군한지면 하왕십리(漢芝面下往十里)구백팔십번지 실륙호 김정자(金貞子)의 장남임석창(任石昌)(二〇)은 일오후열한시경 가긔모친에게 꾸지람을듯고나서 그길로자긔집팡에 드러가목을 매여자살하엿다 소관동대문서에서는 서원이 출동하여사실을 조사하고 시체는대학병원에서 해부에 붓치엇다

朔寧에怪屍漂着

【朔寧支局特電】 경긔도삭녕(朔寧)지방에는 비가 계속하야오더니 림진강(臨津江)이 범람되야 이일오후에는 의문의남자나히이십오세가량의시체가표착하얏는데 신원은 불명하다

十字架黨事件 南宮檍豫審決定

京城地方法院에서豫審中 六名有罪二名免訴

경성지방법원제이예심계중촌(中村)판사의 담임으로 취조중이든 홍천(洪川)십자가당(十字架黨)사건은 삼일오후에예심이 종결되엇다 피고인 여섯명중에서 남궁억(南宮檍)등네명은 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혹은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으로유죄로인증되어 그법원공판으로회부되고 목사리윤익(李潤翊)과리기섭(李起燮)(二一)두명은면소(免訴)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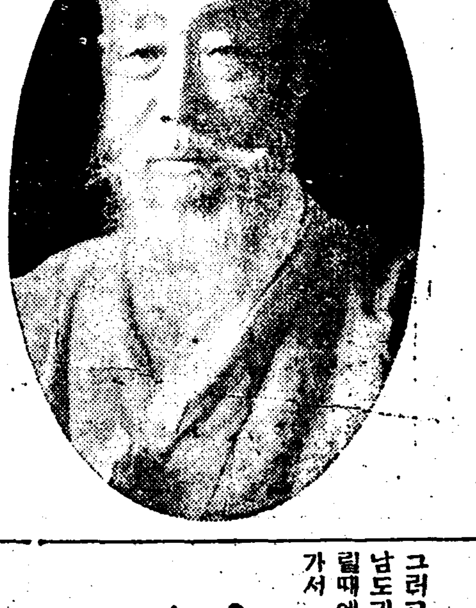
▲公判廻附者

▲江原道洪川郡牟谷里 牟谷學校長 南宮檍(七三) (保安法違反)

▲洪川東拓事務所小使 金福童(三〇) (保安法違反幇助)

▲牧師 劉福錫(三七) (治安維持法違反)

▲性畑 (治安維持法違反) 南宮煥(二一)



예심결정의 내용을보면 남궁억은 모곡학교를경영하면서 예수교교육을 하는일방으로 생도들에무궁화가(無窮花歌)와기타민족주의사상을 고취하는 창가를 가라치고 또는 조선력사를저작하야 생도들에게 가라처엇다는데 소화륙년부터 김복동을 시켜서 『조선이야기』라는 제목으로단군(檀君)시대부터 죽게동서으로 쓰리사를써서 이십부가량맨드러가지고 리기섭등 십여명에게 배부하엿는데 그책 다섯권가운데는 일한합병(日韓合倂)에 대정팔년의 ○○운동사실과 관계사실이 기재되어잇섯다 한다 (사진은 남궁억씨)

쏘콜運動模倣 新運動開始

蘇聯에서쫓겨와일하든 劉福錫의活動狀況

그러고 류복석(劉福錫)은 함경남도리원군(利原郡)출생으로어릴때에 부모를따라 『로서아』에가서 수도원(修道院)에서 수도하고 후은정원노릇도하고 전도사(傳道師)로잇다가 조선에도라와서 협성신학교(協成神學校)를졸업하고 감리교목사로다 시『로서아로 파견되어가서잇다가 소화오년에로서아(露西亞)에게축출을당하야 다시조선에도라와서 홍천지방에서 목사노릇을하면서『적크슬도바키아』의쏘콜운동을 모방하야 조선에도 그와가튼 민족운동을이르키고저 작년삼월 남천우(南天祐)등수명과 협의하야 십자가당(十字架黨)을조직할려하엿다

天氣豫報

曇時時驟雨

低氣壓은 北滿方面과 黃河下流에잇서서모다 東北으로向하야 進行하고잇다高氣壓은 日本南東海上과 黃海에擴大되여잇다 全朝鮮一般은 흐리고 北東岸은 小雨、明日은 흐리며驟雨가잇다

氣溫 昨日 最高 二九、三 今日 正午 二五、〇

牛乳配達하며 二十圓醵金

精乳舍牛乳部員들

시내본정(本町)이정목십일번지에잇는 정유사(精乳舍)에서 우유배달에 종사하는 이십삼명의직원은 비록우유한병에 일전이라는 배달료를위하야 새벽부터밤까지무거운베다루를밟는불행한 자긔들이나 일조에 수해로 인하야 생활의근저를 일코몸속에서헤매이는 동포들을 위하야 그저잇슬수업다하야 변약한 주머니에서 각각의연금을 모아이십이원오십전이란 그들로서는 피중한 돈을모아 삼일아츰에그전달할것을본사에위탁하야왓다

觀測所初記錄怪候 五十日間의霖雨

雨量도平年의二倍나되어 仁川觀測所七月天候診斷記

지난륙월에 시작한반도의 기상은 전년정상적이아니 여서 기상도(氣象圖)우헤는란선이약동하야 실로조 선에기상관측사업(氣象觀測事業) 창시된후 처음이 라한다 즉 륙월의기압배치는북태평양의대고기압이 아주남 쪽으로 기우러저서동쪽은 놉고서쪽은 낫든레년의기 압의형을 깨트리고 남쪽은놉고북은 나즌비상상태를 현출하엿다 따라서 남풍이늘부러와서 비가나리는구역은 대체로 북으로 치우쳐서 삼남지방은 한발이계속하야 흑서지옥을 현출하고일방북조선에서 만주방면은레년에드물게 비가만허서 그바면의하천은 벌서부터범람하엿다 이러한변태적인 기압배치는 칠월중순까지 계속되고그후는 고기압은 북쪽『오호츠크』해에 이동하야 다시 동해안으로 신건하야반도는 동쪽이놉고서쪽이나서저 각처에취위가나리기시작하야 남조선의한발도 해소되엿다고 겨우 안심하기도전에 다음에는 태풍이대만(臺灣)올짓밟고 북진하야 조선에절박해온 공전의대수재를 이르켯다 그뒤에도 대체로 기압배치는 이러하야 련일개임날이업서서 중부이북은장마가 사오십일식 계속되엿다

삼남의 칠월중우량은 륙백미리를 너머서평년의 이배를 돌파하야 이역관측사업창설이래의 최고과록이다

칠월중의 평균기온은제주도(濟州島)와 목포(木浦)를 제하고는 전조선각지가 일부내지이도가량식 레년보다낫고 우량은 경성、강능(江陵) 원산(元山)을 제하고는 각지가최하이십륙미리로부터 최고 삼백팔십오미리나 되만코 비온날수는 제주목포、부산의세곳을 제하고는최저일일 최고십일식 평년보다터만햇다

軍官學校關係 未檢擧者十餘名

四十餘名을檢擧取調中인 平北警察各地手配

방금 평북경찰부에서 검거취조중인 남경(南京)군관 학교생잠입사건은 그간 사십여명의관계자를 경성이북의 각처에서검거하엿는데 군관학교 출신으로이미 조선내에 잠입한자중검거치못한자가 다수잇서 각지로지명수배를하고잇다는바 평남출생 장주찬(張周瓚)(二八)등미체포자가 아즉도 십여명에달한다고한다

再襲한水害에 死亡者가十一名

全南과平北兩地에

【二日午後六時警務局着電】 하동안개엇든 비는다시 삼십일일부터 내리기시작하야 전남과 함남 평남북에 수해가상당히잇다는바 특히 전남에는 구례(求禮)지방이심하야 사상자다수를 내엇다한다 즉사망자는 전남에구명 평북에두명 합십일명 부상자는 전남에십일명이고 행방불명자는 륙십에한명이고 가옥류실이 전남 이호나되며 함남각지에는 침수가옥이 백여호에 달한다

三南水害救濟義捐金品

現金累計 七千八百五十六圓五十四錢

物品累計 二萬二千九百八十八點

一金二百十七圓八十三錢 藥品六百五十包 本社平壤支局經由分

內譯

一百圓 鷄里 吳胤善

五圓 舘後里 曺晩植 六圓 鍾路(沈東元 朴元根 康瑀彬 康仁澤 金鳳翼 朴正洪) 五十錢 上水口里 趙元默 一圓二十錢 箕林里 金俊玉 六圓 巡營里一 朝鮮日報社平壤支局員一同 四圓二十錢 巡營里 朝鮮日報社平壤支局販賣員一同

二十圓 港町 中城韓藥局

十五圓 舘後里 中央大學學友會

二圓 上需里 李翰善 三十錢 上需里 金錫燮

四十九圓三十三錢 西城里 平安고무工場職工一同

六圓三十錢 南門通 韓昌帽子店員一同 二圓 海州邑內張鳳洙

韓氏膏藥 二百包 平壤府港町 中城韓藥局

韓氏靈神丸 二百包

銀粒靈神丸 五十包 鍾路 永生堂製藥社

天惠靈神丸 百包

發汗散 百包 鍾路 天惠堂藥房

一金二十圓 新義州府榮町 朴龍甸

一金二十圓 觀水洞洞會事務所

一金十圓 京城實業專修學校職員一同

一金二十圓 京城實業專修學校生徒一同

一金五圓 成興有樂町 金萬福

一金三圓 沃川郡 伊院金融組合職員一同

一金二圓 忠南洪城 徐昌淳

一金一圓二十錢 新孔德里 金敬鎰

一金一圓 京都市中新道高辻上 文昌憲

一金六圓十錢 梨泰院里 朝陽學院職員及兒童一同

一金一圓 同 河淸陽

一金一圓 龜城郡沙器面香山洞 沈一淸

一金十五圓 江原道伊川邑 基督敎朝鮮監理會伊川邑敎會

申錫九監理師外敎布一同 本社始興支局經由分

一金七十一圓

內譯

五十圓 李昌云

五圓 柳東春 二圓 韓昌鎬 三圓 申敬植 一圓 柳新成

十圓

一金四十一圓二十錢 永登浦長老敎幼年主日學校 本社利川支局經由分

(內譯)

一圓金炳義 一圓崔文贊 一圓李興敬 參圓金在燮 一圓朴彩鸞 二圓鄭圭昌 一圓金守哥 一圓鄭宗寶 一圓曺鳳煥 一圓第一商會利川出張所 二圓俞台浩 一圓徐昌紀 二圓金鉉植 一圓金炳哲 二十錢吳元根 一圓丁奎七 二十錢朴南和 一圓李陽載 五十錢李東鎭 五十錢李朝旭 五十錢趙永善 五十錢金厚煥 五十錢李宗默 五十錢李興男 五十錢申成均 五十錢姜奎萬 二十錢尹壽成 二十錢金云先 二十錢朝日洋服店 二十錢辛仁淑 二十錢李敬培 五十錢朴魯贊 三十錢趙相厚 二十錢朴敎遠 五十錢李圭吉 二十錢李光先 二十錢韓禹錫 二十錢權順西 五十錢全仲汝 五十錢黃允哉 三十錢朴魯憲 三十錢李根永 五十錢李德相 三十錢朴成勳 十錢趙泰榮 五十錢金永吉 二十錢權泰煥 五十錢鄭智永 十五錢安德化 五十錢李容淳 三十錢南百祐 五十錢具完書 五十錢崔應泰 二十錢李繼山 五十錢鄭光薰 二十錢吳興根 三十錢柳根春 二十錢尹壽元 二十錢丁日燮 三十錢金昶德 二十錢沈元先 三十錢李承根 十錢李城薰 三十錢金慶天

▲長湖院 一圓劉甯植 一圓金鍾旭 一圓朴準浩

一金貳拾四圓七拾錢 義州佛敎觀音婦人會 本社義州支局經由分 第二回

內譯

一圓梁成淵 林昌和 趙乘道 五十錢邊根盛 張秉基 金賢淑 崔문숙 崔明하 李永銀 申중희 宋昌植 張雲景 李英順 張晋賢行 金孝哲 金賢善 鄭得聖 鄭惠玉 張용상 洪明淑 三十錢朴春盛 張成주 金千年 二十錢金順和 金壽正 具래淑 李根道 朱惠卿 十錢鄭誠實 白용화 張孝善

五圓義州萬盛館黃成國 三圓義州金芷齋 三圓義州申彦治

一金二十圓也 同志同人

三圓羅雲洞全恒燮 一圓五十九錢全羅光州邑金昌浩 一圓十一錢諫洞崔秉哲 一圓昌成洞劉三烈 一圓苑洞洪容善 一圓玉仁洞姜應天 一圓玉仁洞朴奎緒 一圓需昌洞張世瑩 一圓無名氏 一圓橋南洞趙徽晏 一圓杏村洞李承吉 五十錢鍾路六丁目鄭癸順 五十錢勳晨洞吳明瑞 五十錢舘洞白大鉉 五十錢唐珠洞金明龍 三十錢都染洞徐海鳳 三十錢峴底洞李承烈 三十錢仁寺洞金鍾植 三十錢玉仁洞朴齊麟 三十錢貞洞李鳳赫 三十錢西大門町二丁目洪秉規 一圓橋北洞趙漢祜 一圓五十錢平洞丙申植

一金四十圓 (送料二十五錢除錢) 本社羅津支局經由分

內譯

五圓申敬天 三圓朴小出 三圓柳震杰 一圓五十錢李鍾顯 一圓五十錢李錦濬 一圓金一鍋 五十錢無名氏 五十錢崔基範 五十錢無名氏 五十錢金義壽 五十錢曹仲健 五十錢金又顯 一圓申敬文 二十五錢鄭得天 一圓李楨國 二十錢張壽天 二十錢孟信楨 一圓劉永琪 三十錢川原 四十錢宋錫鉉 二十錢李改釗 二圓鄭斗柱 五十錢黃泰榮 二十錢金鍾琛 五十錢又春錫 五十錢金東俊 一圓慶南旅館 三圓金性道 五十錢金皓燮 五十錢申爽雨 一圓鄭永謨 一圓金鳳仁 五十錢鄭海道 五十錢無名氏 五圓羅津慶尙道人會

一金二圓五十錢 衣類十九點 鍾路監理敎會

內譯

二圓元學常 五十錢任公七 四點元安爾 二點金恩德 六點閔淑 四點李天珪 二點金明淑 一點宋貞守

一金十圓二十錢 本社鎭興支局經由分

內譯

一圓本報鎭興支局李國一 三十錢李俊植 二十錢金順漢 五十錢姜興根 三十錢權燦奎 二十錢裵允瑞 五十錢張寬厚 三十錢金魯權 二十錢趙河允 五十錢金鳳奎 三十錢李根厚 二十錢金東七 五十錢高益鉉 三十錢趙炳錫 二十錢鄭元吉 五十錢孔昭珮 二十錢張弘錄 二十錢李敬八 五十錢韓弘傑 二十錢尹好鎰 十錢陳東洽 五十錢鄭元吉 二十錢朴炳澗 十錢朴良七 五十錢孔柱極 二十錢李永祚 十錢成載七 三十錢吳基權 二十錢金陳淳 十錢金斗全 三十錢吳致龍 二十錢鄭義烈 十錢趙辛吉 十錢尹仁俊 十錢李培烈 十錢無名氏 十錢趙鍾錫 十錢趙炳洛

一金三十六圓二十錢 京城府櫻井町一丁目朝鮮人一同

三圓金相翊 三圓梁在鶴 三圓趙昌玉 三圓宋煥興 一圓金英煥 三圓張慶煥 三圓池德鎬 一圓李光玉 五十錢姜志鳳 一圓趙南圭 一圓崔良元 一圓李李泳 五十錢崔順成 一圓高大俊 一圓鄭河泳 五圓吳元根 一圓李景成 五十錢李世昌 一圓權吉道 五十錢嚴英燮 五十錢柳壽福 二十錢李浩永 五十錢宋晴山鳳 五十錢申良任 五十錢李昌根

一金三十六圓四錢 衣類七十三點 本社仁川支局經由分

內譯

十四圓五十八錢 學校兒童一同 仁川博文普通

四十點

花平里鄭順澤 一圓外里泰昌堂全永桓 五十錢山手町張弘奎 一圓山手町金星煥 一圓金谷里世一醫院尹世一 一圓外里中央고무商會 四圓五十六錢直野精米所事務員一同 四圓十錢職工一同 三圓三十錢同米撰部一同 五圓仁川洋服商工親睦會

一金二圓十錢 中林旅舘一同

內譯

一圓中林旅舘 二十錢尹長男 十錢梁寬玉 十錢宋興申 二十錢金容俊 十錢張分到 十錢邊元順 十錢兪成俊 十錢沈在龍 十錢金正昌

一金二十一圓一錢 衣類三點 本社永同支局經由分

內譯

二圓孫在夏 一圓洪明意 一圓天成泰 一圓烏余藏 一圓李

澤秀 五十錢義和福 五十錢永同商會 五十錢金鍾恪 五十錢成得煥 五十錢洪淳鴻 五十錢尹基賢 五十錢朴先同 五十錢鄭度相 五十錢堀龍雄 五十錢金周恒 五十錢金德中 三十錢成永寬 三十錢李春紅 三十錢武吉舘 三十錢洪尙杓 三十錢李蟾月 外衣服三點同上 三十錢金德善 二十錢金成達 二十錢鄭喜澤 二十錢成演基 二十錢朴來鴻 二十錢李聖澤 二十錢鄭今連 二十錢鄭學洙 二十錢崔璣權 二十錢全應杓 二十錢朴來洪 二十錢金令煥 二十錢鄭完俊 二十錢金德雲 二十錢李變圭 二十錢鄭雲錫 二十錢李相宣 二十錢朴元根 二十錢朴道根 二十錢金景達 二十錢朴雨用 二十錢中川繁乃 十錢朴喜鵬 十錢李鍾三 十錢鄭範浴 十錢孫文植 十錢崔景子 十錢金玉姬 十錢尹宗贊 十錢徐炳植 十錢孫重鉉 十錢嚴亨植 十錢鄭永俊 十錢陰是顯 十錢李奎奭 十錢李桂香 十錢李福亨 十錢孫在國 十錢金東昊 十錢尹恭重 十錢朴來益 十錢朴敦夏 十錢金石起 十錢鄭雲極 十錢季花亭 十錢張仁奎 十錢鄭算浴 十錢高來昶 十錢金學善 十錢芙蓉果人 十錢鄭榮達 十錢吳甫淳 十錢鄭萬根 十錢金弘培 十錢李尙魯 十錢朴來鳳 十錢孫武鉉 十錢安相鉉 十錢權寧鳳 十錢閔泳協

一金卄二圓五錢 京城精乳舍牛乳部一同

內譯

五圓井上巖二 一圓李龍玉 一圓鄭浩慶 一圓李錦先 一圓藤本 一圓池光 一圓許南鉉 一圓姜斗順 一圓李永男 一圓姜大植 一圓李永奎 一圓金洛祥 一圓李益南 五十錢朴寅鍾 五十錢金健基 五十錢田鋪佑 五十錢郭起漢 五十錢崔秦植 五十錢李惠東 五十錢安道成 五十錢鄭浩喆 三十錢金相善 三十錢金朝寧 二十錢村山翔 二十錢神川學 二十錢鈴木春夫 十五錢朴將玉 十錢金補煥 十錢金長煥

一金卅圓十七錢 濟州島華瑟浦有志一同

內譯

三圓金壬吉 二圓李道一 二圓邊大祐 一圓李斗成 一圓李致勳 一圓李中出 一圓李辛祐 一圓文達珍 一圓姜榮述 一圓梁西生 一圓崔益現 一圓文達贊 一圓李龍佑 一圓李辛芳 一圓姜君石 一圓李正八 一圓梁榮壽仙 一圓李致良 一圓金成益 一圓李花玉 一圓韓在庚 五十錢姜興秀 五十錢金鸞鍾 五十錢李丁行 五十錢李壬春 五十錢丁秀元 五十錢左戌生 五十錢許寬孝 五十錢李元玉 五十錢金永鴻 五十錢高建圭 五十錢姜五京

小計 六百八十圓三十錢

物品小計 七百四十五點

朝鮮社會事業協會(第七報)

日計 三九一圓七〇錢

累計 四四、二八五圓一八錢

列車脫線爆發

【哈爾賓二日發聯合】 이일오전여섯시경에 『할빈』을 떠나동(東)으로 가든제구십이호 렬차가 동부선 위사하(葦沙河)역 부근을 진행하든중 반만군의손으로 선로가파괴되엇까닭에 탈선되며 긔관차한채와 화차두어채가 전복되얏는데 그와동시에동화차에 실엇든〇〇이 터저서 화차는 즉시불이부터서 만주인경승병수명의 사상자를 내엿다 최근동부선에 이런종류의 렬차사고가 빈발하는리면에는 의문의정이만타고하야 당국에서는 철저적구명을꾀하고조사중이다

庭球代表

今夜發伊勢에

日本三重縣宇治山田市에서열리는 第一回全日本軟式庭球府縣對抗及選手權大會에 出戰하는 專門校、一般兩部代表選手二十名은 鑑督野副、古屋兩氏引率下에 今三日午後九時四十分京城驛發車로 壯途에登할터이라는데 一行의멤버는다음과갓다

▲專門部

普專(成炳文 魯炳翼) 藥專(高學洙 成聖用)

高商(向井 山根) 醫專(越野 副部)

▲一般部

殖銀(洪承武 朴龍善) 金田亨(商銀) 李應默(總府)

遞信(宮崎 孫觀星) 戰秉律(總府) [illegible](鐵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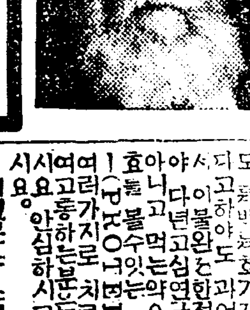
總府(熊野 孫福仁) 島川(商銀) 鄭士連(鐵道)

보양 보음 젊어지는약은 가이자가제일이요

효력최극상최특등, 동서양에제일유명한약의정분만히느엇답니다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 제일속히낫습니다

효력최극상최특등, 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독일약에서 느엇답니다



매독에는 푸로다-가제일이요

효력최극상최특등, 륙백륙호이상의특효가난답니다

만일무슨약이던지 이상일쓰시와 특이성의체질(特異性體質)로변에 안맛거나 현저한 특효가업거든 약을곳보내시오 천구하시는대로하여 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側(五) (제일큰서양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二三四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水災에우는同胞에 幅湊하는同情의淚

開城의無名婦人 또衣類十五件 —開城支局接受—

【開城】 지난이십륙일에개성부서본정 무명녀사가 남조선수해지의 리재동포에게 보내여달라고 의복사십벌을 본사개성지국에 의뢰하엿다함은 긔보하엿거니와 지난일일 오전에도어떠한부인이 의류(衣類)십오점을 가지고와서 남조선 이재동포에게 보내달라하고 씨명도가라처주지안코 도라갓다한다

東萊婦人會서 빵三千個配給 龜山、七點山等地

【釜山東萊支局員發信】 락동강연안의 대수해에대하야 동래부인회에서는 간부수인이 현장에가서 피해민들을 위문하는동시에 본보동래지국을 통하야 금오십원을 출연하엿다는것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이십구일에는 동래지국의 안래로빵떡삼천개를 그돈으로사서 직접피해지인 귀포를위시하야 교통이롬면하야 식량품기타에 다대한곤란을맛고잇는 칠점산(七點山)동지로 가지고가서 배급하고도

라왓는데 피해민들은 감사의뜻을 표하여마지안는다고 한다

水害義捐募集 醴泉郡主催

【醴泉】 상남의전체를휩쓸고지나간 대호우로인하야 례천군은긔보와가티적지안흔피해를바덧다 그중에서가옥과 전답을일시에 일허버리고 의지가지업시된 참담한사람이 오백사십일호 상천이백사십여명이나된다는데 이들은 당장에먹을것도업고 잠잘곳도 업슴으로 군당국에서는 위선 응급수단으로 구제회를조직하고 가면에 위원을선거하야 면별로 긔부금을 모집하는중이라고한다

海平災民에 救濟品遝至

【善山】 경북선산군해평(海平)지방도역시 락동강연안에잇는 부락 전답(部落田畓)이금번 희유의 대홍수에 막대한피해를입엇다 함은 긔보한바어니와그간조사한결과 그수자는 아니놀널수업다 가옥도귀 칭수유실등이백칠십삼호이고 전답 피해가 천이백십정보에 달하여 총피해액이 해평일면에만 십륙만원이란 수식자가 생하엿다고집일코 먹을것 업는리재동포는 지난이십사일 부터 딱읍상일까지동면에서 밥을지어서 구제한다는데 이참혹한 광경을당하고 의지할곳이 업서가로상에서 방황하는 이재동포를 위하야 당지특지제씨는 다음과가티 구제품을긔증하엿다고 칭송이자자 하다

海平桃李寺 白米二十斗
海平洪基洙氏 大麥 十斗
海平崔鍾爽氏 大麥 十斗
海平崔鍾憲氏 大麥 一俵

死線의五十人命을 自家에收容救護 金海許璋氏의慈善心

【金海】 김해읍마마리(金海邑馬麻里)에사는 허장(許璋)씨는금번수해로다수한인명이사선상에잇는것을보고동정의눈물을금치못하야목선(木船)한척에일백오십명의먹을밥을준비하여대저면을만리의리재민을구하엿스며 동이십사일에도라오는 배로는 수용처에가지도못하고 생명이 위급하여잇는 피해민오십명을 실고와서 허씨의집에수용구호하엿다고 일반의칭송이 놉다고한다

救濟米分給

【公州】 공주상반회(公州상반회)에서금번 대홍수의재변을맛나 가옥과 시량을 갑작이일허버리고 긔한에우는 공주부근동네잇는동포외수제가 목하시급하다 하야백미(白米)한섬를주선 하야지난 삼십일 오후오시경에 수재동포에게 분급하엿다한다

錦心繡肚의 友情發露

方一榮君兄弟

【定州】 삼남수재의 참담한정경에 마음쓰라린 동정금이모히고 또모히여 이미 일천원을 돌파하엿다ー여긔에 천진란만한 어린두아이의 비단결가튼 동정심의 발로가잇다ー그는정주성내(定州城內)에 잇는 일곱살되는 방우영 (方又榮)군과열두살난 방일영 (方一榮)군으로 지난삼십일저녁에두 형제가 손목을잡고 본보정주지국을 차저와서일영군이이원、우영군이 일원십오전을 테불우에 내혀노코 말업시 나아가라고하기에 붓잡고무러보니 그돈은할아버지와 할머님께서 잇다금주신것을 저금하여 두엇든것으로 이번 삼남수재로인하야 불상하게된 자긔와가튼 어린아이들을 구하여달라는 외미를 말한후곳 도라갓는데 이순진한동심의 우정발로에일반 인사들은 찬탄함을마지안는다고한다

◇寫眞…方一榮君兄弟

林李兩孃

【岐陽】 근고초유인 남조선지방의 대수해소식을 듯자당지림호빈씨의 사녀 춘실(春實)(一三)과 리안룡씨의 장녀 연주(淵珠)(八) 두소녀는 본사 기양지국에 자긔의복과 벙어리 철궤를 가지고와서재지 동포에게 전하야달라고 의뢰한바잇섯다 림춘실소녀는 당지모교삼년생으로 자긔가연필과 붓사고 남은 돈한푼두푼저금하엿든돈오십칠전과 자긔의 의복삼점을가지고 왓스며 리연주소녀는 당지유치원일년생으로 의복두점과 모아두엇든 벙어리철궤을 들고왓는데 돈는사십칠전이 들어잇섯다 두소녀는 이의복과 돈이 비록적으나마 하로라도속히 재지동무에게 보내달나하고 도라갓다

◇寫眞…(右)林春實孃(左)李淵珠孃

陳海英孃

【全州】 지난일일오후 세시에전주시내 대정(大正町)중외서원(中外書院)진상용 (陳相庸)씨의 장녀로방금 전주유치원에 단이는 금년여듧살되는해영 (海英) 양은자긔가집에서부모에게어든돈을벙어리에모아보관 하엿든돈 오원삼십칠전이드러잇는 저금궤를 지국으로 가지고와서 저재지리재민에게 전해달라는 말을하면서 옷이업서서 우는아이도잇슬더이니 또다시 어머님께말삼하야 일간제가 입는옷이라도 멧벌터가저오겟스니 전하여주시요라고 하며 어린소녀해영의 얼골에는 동정에넘치는애의신(愛之神)이 머무른것갓다

(寫眞陳海英孃)

또小兒私刑事件

暴雨中梧桐나무에 數時동안매달아

【星州】 경북성주군성주면경산동(星州面京山洞)에거주하는 서촌번작(西村繁作)(四三)이란사람은 한동리에거주하는 김득성(金得成)(五二)의장남 김원태(金元太)(三)란아이가 수일전에자긔참외바테서 참외멧개를 절취하엿다고 지난칠월삼십일일 오후 한시반경에 김원태가 우물에나온것을보고 참바로결박하여 자긔집까지 다리고가서 정원에잇는 오동나무에결박하여두고 서촌은 공모자를잡으러 나아간뒤에 때마침폭우가 나리기시작하엿스나 집안사람들은 푸러줄생각도안이하엿는데 이소문을듯고차저간 김원태의삼촌 김긔홍(金琪泓)(四三)씨가수차애원하엿스나서촌의안해는남편의허가가업다하여푸러주지안어비를마저가며결박되여잇다가오후다섯시에경찰서원이알고 풀어 주엇다는데 아이는네살때모친을 일허버리고 자긔부친김덕성이는 일본내지에가고 그숙부김긔홍(金琪泓)의집에서 교육을밧고잇는중이라한다

憤을못참아 告訴提起

被害者側 金琪泓氏談

편분합니다 제가분명한 사람가튼면 시민운동이라도 이르킷겟습니다다만은 재호자말하여도 잘되지안이할것가타서 그만둡니다만은 오늘저녁에도 어제저녁과가티 늘나는긔분이잇스면 의사의 진찰을바더 어대까지라도 대항할작정입니다 분에못참아 금일 고소까지 하엿습니다

結縛은事實 後悔莫及

西村繁作氏談

記者 김태원이가 당신의 참외를 절식하엿다고 오동나무에 결박한것이 사실입니까?

答 사실입니다

問 경찰서에 설유원을 제출안하고 엇더케사형을 하엿습니까

答 다른아이들이 본바들가 하여그러케 하엿스나 이것도법률을 모르는탓입니다

問 소감은 어떠합니까

答 잘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조선에 이십칠년을 살어도와홍한번 한일이업스나 작일은 운이납버서 그런듯합니다

김긔홍씨에게가서 만이 비럿습니다

減水에따라 復興工事開始 洛江沿岸에鎚聲充滿

【釜山】 대홍수로인하야 락동강이 범람한연안일대와 귀포부근은 이십이일 최고수위를매돌 륙십이의긔록을남기고 삼십일일 오전팔시현재로 삼메돌팔십이까지 감수되엿스나 평시대로 회복하려면 아즉사오일을요할것이며 리재민은아즉도 한데서 로숙하고잇다

사룡부락인남지 (南旨) 삼랑진방면도 감수되여 피난소에수용되엿든 리재민중에는 집에차저들어복구 공작에분망중 복구긔분은피해 각지에충만 하엿다고한다

兄弟가共謀 放火後에窃盜 放火八件、窃盜十七件

【仁川】 부천군소사면심곡리(富川郡素砂面深谷里)삼백십이번지 파수원토정무삼 (土井武三)의장남토정무 (土井武)(二〇)이남토정소남(土井素男)(一七)의 형제는 작년팔부터 변태성으로 소사역 부근각처에 방화를한후 주인의 소동하는 틈을타서의류 금 금품등을절취한사실을 소관인천서에서 탐문하고 지난삼십일 길강부장(吉岡部長)이현장에급행하야 범인을체포한후 방금엄중취조중이라는데 동범인의 자백에의하면 방화팔건절도십칠건이라하나 그외에도 여죄가만흔듯하다한다

元山市內에서 僞造紙幣發見

【元山】 지난칠월삼십일일오전구시경 일견 로동자가튼자가 원산부 본정삼정목 연초소매인 김중자(金仲子)에게서 십원지페로 피존두갑을사가지고 간일이잇섯는데 뒤에 전긔지페를자세히 살펴본결과 의외에도그는 위조지페로 판명되엿다 원산서에서는 이신고를밧고 방금범인을 엄탐중이라는데 일반시민은 이위조지페에주의할것이라한다

南朝鮮― 個人庭球大會 扶餘分局後援

【扶餘】 충남부여군 은산체육회에서는 오는팔월십구일 본보부여분국후원하에 남조선개인정구대회를열고저 각임원들은 만반준비에 로력중이라는데 상품은 우승긔와 은컵일조와 려비이십원이라한다

水原四街里에 納涼夜市開始

【水原】 수원역전으로부터남문밖으로통하는 신도로는 그동안완성되여 자동차와 인마의통행이점차로 빈번하여가는 이지음남문밖 사거리로부터 수원극장까지의 서측신도로에 수원으로서는 처음계획인 야시를시작하려고 수원유지수인의 발긔로 당국에 허가신청을하는일방 가로의 전긔장식도 찬란하게준비되엿는데 전후의회복을 기다려 팔월초순경으로는 개시될 모양인데 일반시민의환영리에 이납량야시는 대성황을 예긔한다고

公州夜學生의 눈물겨운同情 公州支局接受

【公州】 금번삼남대홍수에대하야 본사에서는 비행긔까지출동하야 수해당한동포의 비절한참경의비보에 놀내며 본사의수재민 구제활동에감동이된 공주청년회관에잇는 공주서당 야학생일동은 극히빈한한 살림을하면서도 수재를당하고 긔한에우는동포에게 동정의눈물이 업슬수업다고 그아동들은 푼전을모와 이원이십이전을 지난삼십일에 본보공주지국에전달하며 하루밧비 본사에보내여 수재동포를구하라는 인정다운 동정금이 잇섯다한다

懸賞入選小說 마음의太陽 (六十三)

玄卿駿作 金熊超畫

애욕의불꽃(六)

인숙이가 차저온데 대하야 경호는 그다지 반갑지가안엇다만은 승우는 울넝거리는가슴을 부둥켜안고 엇절줄을 몰낫다

둘을 소개한다음 경호는 승우의모양을 빙그레 우수며 보고잇섯다

인숙이는 승우의존재는 이즌듯이 경호의쪽만 향하야 이애기 하엿다

그것이 승우에게는 좀 섭섭하엿다

『돌아 오는 미술전람회에는 부듸 성공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호의대답은 몹시 냉정하엿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숙의태도는 부두러웟다

『저 변변치 안치만요』

하고 인숙이는 네모난 조희곽을 둘의압헤다 내노핫다

한번보아서 그것이 양과자과인줄은 곳 알엇다

『이건 공연한 념려를』

하며 경호는 미안하다기보담 귀치안타는듯이 바다들며 인사하엿다

『뭐 존것이라구 잇서야지요?』

『천만에……』

하고 경호는 부엌에 나가서 차스그릇들을 가저왓다

『추운데 쓴차래두 한잔 잡수어보시지요!』

하고 그는 인숙이로서는 한번도 먹어못본 그럼것을 조곰도 서슴지안코 권하엿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숙이는 맛은 업섯지만 달게먹엇다

승우는 겻해안자잇기가 좀 멋이 적엇다

그러타고 추운데 어듸 나갈수도 업고 그저 안자서 망서리엿다

얼마후 경호는 둘을 처다보며

『두분이 재미잇는 이애기나 허시지요 저는 일이 좀밥버서』

하고 일어서서『캔버스』압호로 갓다

승우의 얼골은 갑자이 화근달어올낫다

인숙이는 하는수업시 승우와 몃마듸간 안자서 이애기하다가 돌아가버렷다

그가 나간다음 얼마잇지안어서 승우도 극장으로 갓다

경호는 혼자안저서 그림을 그리고 잇다가 숫불을 피이며 곰곰히 생각하여보앗다

아모리 생각하여보아도 자긔에게대한 인숙의태도는 한도를 지난듯 하엿고 그리고 인숙에게 대한 승우의태도도 확실히 한계를 지나친듯하엿다 그는 처음부터 인숙에게 대하야는 호감을 늑기지안엇고 그엇던 불쾌한 인상을 머리人속에서 뽑아버릴수가 업섯다

그와 반대로 승우이는 어느편으로 보던지 그의맘에 들엇던것이다

거츠로는 냉정한태도를 취하엿지만 승우이가 그를 열렬하게 생각하고 잇는것만큼그도 승우이게 대하야는 열렬한 감정을 품고잇섯다

그럼으로 승우이가 안타가워할때는 그의마음도 안타가웟다

그는 여러번 종용한기회를타서 자긔의 심중을 고백하고 애타는 승우의심중도 풀어주려고 하엿다

그리고 의지할곳업는 자긔의 외로운몸을 따뜻하고도 부두러운 그의품속에서 고요히쉬워보려고 하엿다

그러나 그러케 결심한때마다 그의머리人속에 일어나는것은 게순의 그림자엿다

평소에는 생각조차 하지안코 이저버렷던 그게순이가 그러케 생각나는것은 경호의자신으로서도 이상하엿다

그는 게순에게 대하야 그무슨 량심에 가책바들일을 한일도 업섯다

설사 량심에 가책바들일을하엿단들 거처불명인그를 생각하며 지난다는것은 넘우나인도주의적이엿다

만은 그는 웬일인지 게순이와는 꼭 그무슨 구든약속을 한것갓고 그리고 어느때던지 자긔의눈압헤 불의에 나타날것갓하엿다

그것이 그생각이 늘 승우이게 대한 경호의결심을 늣추게 하엿다

한참동안 안자서 여러가지생각을 하는동안에 방안에는 숫내가 가득차서 머리가 엇즐엇즐한고로 경호는 문을열어제첫다

그리고 시계를 처다본다음 저녁준비를 하려고 방안을 거터치우는때 승우이가 들어왓다

美麗說明書進呈 당신의눈을爲하야꼭 一瓶하십시요下記에申込同時進呈

近代人用의・新眼科藥

스마일

여름바다!

사랑은……陽傘(빠라솔)의 그늘에서 퓌다지요……

日焦色(썬빼ーㄴ)살결의魅力이 아니!아니!아니!

處女들의눈에서 시원한 スマイル의魅力!

直射한陽光!刺戟性의海水!바다는눈을 傷하기쉽습니다。スマイル는醜한눈의 充血을除하고。눈瞳子의魅力과健康을增進식힙니다。

25錢 45錢 1圓의三種
自動式點眼의スマイール는 新容器入
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人魚들이여!
浴服이아무리 모던이라도눈을붉게하야서는絕對로안되오。スマイル의눈으로써모여드는河童들을단번에참잉식히십시요

本舖 玉置合名會社
東京・日本橋・本町 振替東京七二番

S-48

蠶系應急施設 三百萬圓支出
今日閣議에서決定

【東京電話聯合】山崎農相은 三日의閣議에서 蠶絲對策에對하야 如左히說明을試하고各閣僚의諒解를求하야 三百萬圓을支出하기로決하얏다

養蠶地方救助를爲하야 應急對策을講함이 急務임을認하고 養蠶者同地方에對하야 政府所有米의拂下에對하야 善處한바 잇섯는데 今回다시急施를要하는如左한施設을하기로 決定하얏다

一、夏秋蠶共同保管助成施設
二、重要蠶絲地方의繭蠶整理助成施設
三、桑園混作獎勵施設

右에要하는 經費三百萬圓으로 其中百五十萬圓은第二豫備金支出로하고 他百五十萬圓은臨時農村經濟更生諸費等의 旣定豫算中에서 繰上施設하기를決定하얏다

右外도 養蠶應急資金融通資金의圓滑한 融通을圖할必要가잇다고 認하야 農林當局은養蠶資金으로서 約三千萬圓을大藏省預金部、勸業銀行에서 모으도록努力하야 萬遺漏업기를 期하고잇다 今後에 잇서서도 事態의推移에對하야 注意를거듭하야 지안토록努力할생각이다

決定된內容

【東京電話】夏秋蠶對策은 農林、大藏兩省交涉의 結果決定을보앗슴으로 三日의 閣議에 附議하야 如左히 正式決定을보앗나

A、第二豫備金에서 支出하는分 總額百五十萬圓、內譯은乾繭共同保管助成費 七十五萬圓、桑園整理助成金七十五萬圓

B、旣定豫算에서 支出하는分 總額百五十萬圓、內譯은桑園混作獎勵費百五萬圓、乾繭共同保管助成費四十五萬圓

C、以上合計三百萬圓

恒久施設을 農相이說明

【東京電話聯合】蠶絲應急對策에對해서는 三日의閣議에서 다시 別項과가티決定하얏는데 다시 恒久施設에關하야 山崎農相으로부터 同日의閣議에서如左히 說明을試하고 各閣僚의諒解를 求하얏다

一、產業對策에關한恒久對策에 對해서는 斯業의刷新更生을圖하기爲하야 徹底的方策을樹立할이緊要함을認하고農林當局은
一、蠶種整理의統制
一、桑園의 計劃的整理 其他蠶絲維持更生施設
一、主要蠶絲府縣의經濟更生特別施設
一、輸出生絲의 販賣統制施設等에對하야 銳意考究를거듭하고 또一般要求의 達成을速히하라는 方針으로모다成案을 閣議에 諮하야 承認을 求할터이다

浸水된貯租의 特別解除한數量
九萬五千七百四十二石

▲三日農林局發表 朝鮮內 長期貯藏된正租中 浸水된것에對하야 總督府에서 特別解除키로 方針을 定한것은 이미 報道한바어니와 三日午前中 總督府農林局에서 正式으로 特別解除된 正租에對한 總數量을 알에와가티 九萬五千七百四十二石으로 發表하엿다 그內容을 보면 慶南三萬石을 首位로한七道에 亘하엿스며 最少한道는忠北四十六石이다(以下單位石)

▲忠北四六石 ▲忠南四、三四一石 ▲全北一一、三〇七石 ▲慶北二六、七八七石 ▲全南二一、三〇一石 ▲慶南三〇、〇〇〇石 ▲平南九六〇石 ▲計九五、七四二石

貯租의殘量
百七十萬四千餘石

別項과가티 朝鮮內 正租長期貯藏에잇서 이번에 浸水된特別解除된것이 九萬五千餘石에 達함으로 이것과貯藏總數量三百萬石中 第一次解除 第二次解除의 總量百二十萬石을빼이면 百七十萬四千三百五十八石이 남게되는바 結局이것이目下 正租長期貯藏의 殘量이다

市京爲替(三日)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十三 買 二十九弗八分七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七 買 一志二片四分一
大阪爲替(三日)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十三 買 二十九弗八分七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七 買 一志二片四分一

移出港月末在米 百五十六萬餘石
比前月十七萬石減

朝鮮內 各移出港의 七月末日現在在米量은 民間持三十六萬六千五百三十八石 政府持百十九萬四千六百四石 合計百五十六萬千百四十二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七十八萬千百六十四石增加이나 前月末보다 十七萬十二百四十二石의 減少인데 그內容은알에와갓다 (單位石)

	民間所持	政府所持
▲群山 白米	[illegible]	—
▲群山 正租	[illegible]	[illegible]
▲群山 玄米	一〇、三〇〇	[illegible]
▲群山 白米	[illegible]	—
▲仁川 正租	[illegible]	[illegible]
▲仁川 玄米	[illegible]	[illegible]
▲仁川 白米	[illegible]	—
▲鎭南浦 正租	[illegible]	—
▲鎭南浦 玄米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白米	[illegible]	—
正租	三六、九八二	[illegible]
玄米	[illegible]	[illegible]
白米	一〇〇、七四三	—
臺灣玄米	[illegible]	—
臺灣白米	[illegible]	—
▲釜山 正租	[illegible]	—
玄米	[illegible]	[illegible]
白米	[illegible]	—
濁白米	[illegible]	—
▲木浦 正租	[illegible]	—
玄米	[illegible]	[illegible]

그리고 各港別은 알에와갓다

後藤、山崎兩相 首相과會見
◇…夏秋蠶對策으로

【東京電話聯合】後藤內相、山崎農相은 三日에 閣議를열기前에 午前九時半 岡田首相과 官邸에서會見하고 兩相으로부터 夏秋蠶對策에關한 大藏農林兩事務當局의 折衝經過를 報告하고 다시 農林省의 意向과그對策에對하야 意見을 交換하고閣議에 出席하여다

朝鮮物產 斡旋機關
福岡市에設置

【福岡電話】朝鮮對九州의物資取引이 年年增加함에伴하야 이樞要地인福岡市에 朝鮮產品의斡旋機關을 設置할必要가잇다하야 去月末開催한博多商工會議所總會에서

一、朝鮮의生產品陳列並取引斡旋機關을 福岡市에設置하기를바라는旨陳情할件

을可決하얏다 八月上旬代表者를京城에特派하야總督府要路와折衝하기로되엿다

果樹昨年收穫高
苹果一千萬貫이首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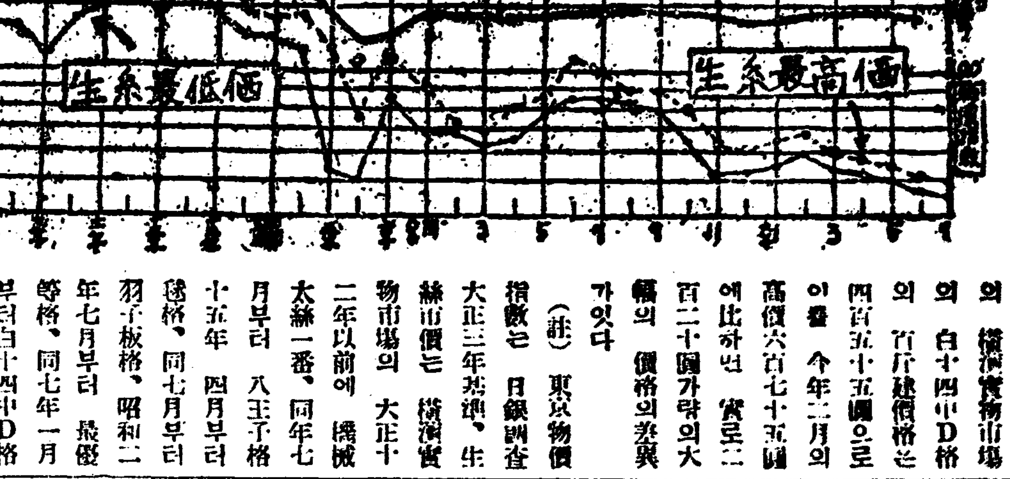
【總督府發表】昭和八年의果樹栽培樹數及收穫高를調査하면 栽培樹數는 苹果百九十九萬一千六百五十九本 梨八十三萬六千五百六十六本 葡萄二十三萬七百九本 桃二十六萬一千八百四十三本 柿七十七萬八千四百四十七本으로서 其收穫高는苹果一千百八十九萬七千百五十三貫 梨三百四十七萬七千二百五十八貫 葡萄六十五萬三千百四十五貫 桃百十萬一千四百九十二貫 柿五百九十九萬五千七百廿二貫 이것을前年에比하면 栽培樹數는苹果十二萬三千十七本(六分六厘) 葡萄四萬一千百六十一本(二割一分七厘) 桃二萬七千八百二十二本(一割〇分九厘)의 增加이오 梨四萬二千九十七本(四分八厘) 柿一萬一千七百八十三本(一分五厘)의 減少를示하얏고 收穫高는 分八厘) 柿一萬一千七百八十三本(一分五厘)의 增加이며 ... 葡萄三十四萬八千九十六貫(十一割四分一厘) 梨二十七萬九千六百八十一貫(三割四分九厘) 苹果八十一萬九千八百七十四貫(六分四厘)의 增加이며 梨四十一萬九千五百四貫(一割一分八厘) 柿五十四萬八千七百九十六貫(六分九厘)의 減少를示하얏다

昭和製鋼所 工場을增築
年產五十萬噸計劃

【通電東京電話】昭和製鋼에서는明年三月實行豫定으로製鋼能力約三十五萬噸(其中二十萬噸日本內地輸出十五萬噸滿洲供給)의工場을 新設中인바現工場開始當時에 比較하면日本內地及滿洲의 鋼材需要關係는全然一變하야現在의 豫定能力으로는非常한 供給不足을 感하게되엇슴으로 製鋼所當局에서는工事完了를 기다리지안코그增築을하기로되엇다 右擴張計劃은現豫定能力의 五十%增即全鋼鋼能力年約五十萬噸으로하는것으로 鎔鑛爐一基 平爐二基의增築이다 이에要하는資金二千萬圓은 拂込徵收로할가借入金으로할가 아직決定되지안엇다

二百二十圓이나 떠러진生絲慘狀

生絲市價의底不知의低落은 日本財界의 農村恐慌의中核이되어잇는것이다 最近의 橫濱實物市場의 白十四中D格의 百斤建價格은 四百五十五圓으로 이를 今年二月의 高價六百七十五圓에 比하면 實로二百二十圓가량의 大幅의 價格의差異가잇다



(註) 東京物價指數는 日銀調査 大正三年基準 生絲市價는 橫濱實物市場의 大正十二年以前에 機械太絲一番 同年七月부터 八王子格 十五年四月부터 羽子板格 昭和二年七月부터 最低格 同七年一月부터 白十四中D格으로함 (百斤建)

農地令施行規則
立案되어審議室廻付
小作委員會規定과함께

總督府農林局에서는 一般으로 朝鮮農地令施行促進의要望이 놉흠으로施行規則의立案을急히하고잇든바 立案을終了하얏슴으로 一兩日中에 審議室에廻付키로되엇다。府郡島의小作委員會에關한規定도 同時에 審議室에 廻付될터인데施行規則은 全文二十條、小作委員會規定은全文三十條라한다

產業國策樹立運動
町田商相主唱으로 各部門統一調整
五次官中心積極檢討

【電通東京電話】町田商相이主唱한 綜合的統一產業國策의樹立에關하여는町田商相으로부터岡田首相에詳細進言하엿는데 그中心點은產業各部門을統一調整하는同時에 外交政策과財政政策의調整을期한다는데잇다 前番政策으로發表한 十大政綱中에도 이를包含식혀產業施設의複雜化에伴하야 그連絡을考慮하야 內外의經濟情勢에對應하야 國民의經濟全局을抱擁하는綜合的產業政策의樹立을期한다는政府의 決意를表明하엿슴으로 政府에서는 그具體案檢討를거듭하기로되야그 着手로 二日首相官邸에 開催된事務次官會議에서 河田書記官長으로부터 政府의뜻잇는바를說明하야 이를事務的으로具體化하기로되엿다 그리고 이를 爲하야特別한 調査機關을 設置할지 안할지는 決定되지 안하엿다 只今現狀으로는 그必要는업스리라는意見이 有力하야今後의事務次官會議에서 大藏、內務、拓務、農林、商工의 五次官이中心이되야 積極的으로檢討를進行하기로決定하엿다 그리고 右研究論議를進行하는中에 軍事工業方面에 그範圍가進展하는境遇에는 다시陸海軍次官及資源局長官도 이에參加할터이다

總督府에서도 專任調査係新設

朝鮮의各種產業은 最近顯著히發達 하는바 生產額需給量等從來確實한 調査統計가업고 무슨事業을 하라는때 또는統制를 하라는境遇等에잇서 確實한統計資料가업는것은 產業助成上 큰缺陷이든바 總督府商工課에서는 今後專任의調査係를設置하고 各種商品마다需給調査를하야企業家의 參考에備하는同時에 助成計劃樹立의基礎로하기로 方針이 決定되야不遠에 調査係를 設置하기로되엇다 總督府에는 文書課에統計係를 두고 各般의統計事務를掌握하고잇는데 各道의報告가 恒常느짐으로 大部分의統計가一個年以上도收集되지못하야昭和七年의統計가오늘에야되다 떨어서 豫算編成과 各種事業計劃의 樹立에當하야도確實한 基礎의數出이 困難한狀態임으로 此際에 朝鮮의實態를 明白히하기爲하야 各道를督勵하야 統計의急速한 蒐集이必要하다고한다

調節米拂下 分割로할듯
米統委員會四日開催

【電通東京電話】農林省에서는四日午後一時半부터 農相官邸에서 山崎農相就任後最初의米穀統制委員會를 開催하기로되엿는데 最近의米穀事情에鑑하야季節調節買上米의 拂下가諮問事項으로 附議될터이다 卽季節調節買上의 日本內地米三十五萬石 朝鮮米百七十萬石의拂下로米價가 最低公定價格을上廻하고잇는限 本米穀年度內에拂下할必要가 잇슴으로 今回의委員會에 諮問後分割拂下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 養蠶地方의 窮乏에鑑하야 此等地方에의政府米拂下는 諒解事項으로 附議될模樣이다

三十萬石乃至五十萬石拂下?
主로日本內地米를 委員會直後第一回로

【東京電話聯合】農林省은四日開催의 米穀統制委員會에서季節調節買上의 二百五萬石全部 拂下에對하야 諮問하고그直後 第一回分으로 三十萬石乃至 五十萬石(主로 日本內地米) 의 拂下를 斷行할모양이라한다

蘭、印機械類 輸入稅免除

【電通바타비야二日發】蘭印政府는 新規工場設立을爲하야또는新規製品製造를爲하야 輸入하는機械類의 輸入稅는이를免除하는旨의法令을 來四日부터實施하기로決定하얏슨바 右는和蘭의 大會社인러네이金이織布機械十五臺를 日本으로부터輸入하는等 蘭印側은日本으로부터輸入되는 織物에對하야着着自衛策을講하고잇서 政府當局으로서도 右의法律을實施하야 機械類輸入에便宜를 供하려는것으로 日蘭會商이陶磁器輸入制限令을 圍繞로危機에當面하얏다고 傳하는際右法律實施는多大한注目을 끄을고잇다

米日爲替保合

【經濟二日商聯合】今日의米日爲替、前日과의 比較는 賣二十九弗八十七仙으로保合이오 買二十九弗九十仙으로保合이엇다

商況(三日)

株式 下澁後에 下落

前場低迷 昨後場下澁反映으로 모다低迷이엿스니 東新은百四十四圓二十錢에四十錢低로依然底强大新九十二圓七十錢에 二十錢低 朝新二十九圓七十錢에十錢低로 各大引되고

日產整理必要 賣買店數同一

賣方이武器로삼던增資가延期된日產은 策動側이根氣잇게買攻防을繼續하다드래도 結局에 잇서갑으로던지 時間的으로던지 內面的整理를 하지아니치못할運命下에잇는데 當地取組內容을보면 總取組高三千四百十枚中株不足이 五百十枚로逆日步三十九錢인바 賣方은白井의千百六十枚가大將格이오 白築의五百九十枚가 그에 小林의二百八十枚外는모다二百枚以下의 建玉으로 賣方數가十五店이오 ▲買方은古野五百八十枚 白井五百七十枚 京證三百五十枚 東亞三百六十枚 立山三百四十枚 等으로買方數가十五店의對立이다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五十枚 ▲호푸베트六、七○ ▲日滿아루미놈 [illegible]

▲東亞殖產 [illegible] ▲大同產業 [illegible] ▲滿州取引所 [illegible] ▲山陽工作新 [illegible] ▲大同電力 [illegible] ▲國光레요 [illegible] ▲에타파이新 [illegible] ▲東洋레요新 [illegible] ▲日本鑛業 [illegible] ▲帝國火藥 [illegible] ▲櫻田機械 [illegible] ▲日滿亞麻 [illegible] ▲福井人絹 [illegible] ▲三菱重工業 [illegible]

重大材料山積 分岐는어듸로

八月新甫는 低調이엇든바 今月은例年과달러서 新藏相의手腕如何를 보이어줄明年度豫算案査定을비롯하야 米穀、蠶絲兩問題로 臨時議會召集是非가결처잇고 外로는日滿會商、北鐵交涉等 諸題가남어잇서 此等重大材料山積으로 夏期閑散裡에도緊張味는相當한바 果然어느 길이强弱어듸로市勢의 分岐를 招케될지 興味視되며從하야八月市勢는凡常치안을것도갓다

夏休氣分閑散 新動機待商狀

東新整理를압둔日商이 百三十圓關門을中心으로低迷이엿을뜰이어 新大新等도軟調이나 突込하야 賣치안음으로 下澁味가업지안은反面에 新規로積極的買進出도조심됨으로 場面은全혀夏休氣分으로 閑散할뿐이다 堅實한優良株에는 依然買氣가잇서投資餘力이잇슴을알수잇스나投機資金이缺乏한때문에 市況이一層交際不振인모양이다

後場閑散

後場은東新百四十四圓十錢에十錢低 日產百二十九圓九十錢에同價로寄付後依然閑散이엇다 六十五圓九十錢에十錢低이엇다

株界六感

× 新甫에떠러저노코 閑散裡에下澁跌合 夏休中이니까그런가?
× 內外의重大材料가山積하얏스니八月市勢를 單純하다고만할수업슬듯
× 材料의好惡間 整理를남긴日產만은 尙高正訂이必要하다는소리가漸高
× 아미整理를맛친東新은百四十四、五圓臺保合에서百四十三四圓臺로 一圓쯤자리를낫추엇슬뿐으로頑强味가그럴듯
× 新規큰材料의出現으로 惡化될다는것은 別問題로치고 取組關係로본今後의東新은 蠶除地가업는것으로보이는바果如何?

東京國債市場

【通電東京電話】中先의立會만으로 取引이자못閑散不透明하야 小幅區區의商狀을 示하얏다
甲五分利 一〇三、五五
佛貨四分利 一八八、三〇

期米 低迷裡에浮動

前場細刻

昨後場阪地二十六圓九十九錢止와共히 二十三圓八十五錢에場을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六圓九十二錢인七丁低落을據하고二十三圓八十三錢인二丁低로場을始한後 意外買氣旺盛하야 阪地八十二錢으로續落함에도不拘하고 八十二錢을最低로 八十八錢으로 八十四五錢에서 繰返하다가 結局阪止八十二錢과共히八十五錢에止場하나

後場昂進

後場은二十三圓九十錢에五丁高든納場後二節九十二錢三節九十八錢에라고別欄가티止場하다

阪地軟弱에도 當地는底迷

新甫十限이發生하자 農林省은 日本內地端境期調節用으로 朝鮮米百七十萬石과 三十五萬石을拂下하기로 決定發表함에 따라 市勢는各地를一齊히落着 先行한바되엇다 實로二百萬餘石을 拂下하는데는端境期의糧米不足을 足히緩和할수잇스며따라서市勢의反落도免치못할것은當然하다고할수잇스나그러나압흐로凶作을豫想하면서實安心을하지못할것도 事實이다그럼으로 期界는數段崩落을示한後부터 軟派의警戒的으로 低然底迷의 狀態를呈하며一方天候에잇서서도압흐로 開花期에까지어떠한 現象을招來할지몰으는만큼 兩方共히腰入的行動을加하지못하고 當分傍觀하는狀態에잇다 今後果何如?

朝取期米取組高

▲當限(賣) [illegible] ▲中限(賣) [illegible] ▲先限(賣) [illegible]

波瀾이만흔 十限의今後

本年의凶變은今月末에至하야 大體判斷할수잇는만큼今月中의 波瀾은客月보다도오히려險惡化할모양이다 政府의二百萬餘石의拂下決定으로因하야一段崩落을告하기는하엿스나 此는豐凶에對한何等의關念이업시單純히 在米不足을緩和케함에不過한것임으로一時的材料로볼수박게업고 特히注目을要할것은압흐로의 天氣如何와米作의良否일것이다 日本內地의北陸水害又는 九州地方의旱害와 朝鮮의未曾有의 水災는적어도三四百萬石의減收를免치못할것으로 旣히 一般이 周知하는바로市勢에 行動을加하엿다할수잇스나이로부터 天候의良否를딸아비롯오古

米豆餘話

◇阪地는 아즉도軟氣分이濃厚한모양인데 當地市場은意外에도低迷
◇그러나 低落의原因이政府米의拂下그것뿐이라하면 深入落도亦難期
◇拂下米로 端境期의糧米不足을 補充한다할지라도 新米期에 入하야는凶作氣分이업지안을모양
◇그럼으로 將來의事情如何를不拘하고 今日의現象만으로 安心賣하지는못할뜻
◇何如間政府米拂下의 市勢는 旣히一巡하엿다하여도 過言이아니슥 찰아리押目買의方針을取하는것이得策일모양

各地正米

京城保合
拂下를月前에 두고잇는만큼 買方은 腰入치안코 大口取引이업스나 突込賣物도업서서市況은步弱인데 ㊂三等二十四圓六十錢 四等二十四圓四十五錢 一等白米十圓三十錢

仁川軟調
移出側의指値가 低位로 買氣不振이며 傍觀의商狀이나 急賣치안어下澁이엇는데 ㊂三等二十四圓六十錢 四等二十四圓四十五錢▲一等白米十圓三十錢

南浦保合
天候不良化로 賣方의態度가强硬하야 容易이 賣添치안음으로 日本內地期米低도 意外로冷靜하야 市況이 大盛保合이엇나 ㊂三等二十二圓八十錢 四等二十一圓六十錢 一等白米十圓三十錢

釜山軟弱
出廻가五百石이 期米軟弱을 보고 氣配十錢低이엇스나 月初關係로 實需側買氣가잇서 千百七十石의 賣買가 잇섯다 ㊂三等廿四圓九十錢 四等廿四圓七十錢 一等白米十圓七十八錢

大邱急落
期米續落을보고 買氣가 全然不振임으로賣焦燥하엿다 그래서 少量이나 賣應하는等 氣配二十錢 急落인데 ㊂三等二十四圓三十錢 四等二十四圓 一等白米十圓十五錢

群山弱合
定期無勢에新規入注가 殆無하며 地場、移出商도 傍觀으로 市況은 活氣가 적고 低價에는 賣添치안코나 弱含의 商情이다 ◎三等二十四圓七十錢 四等二十四圓六十錢

木浦閑散
品薄이며 一面期米低로急賣치안허 閑散을 呈하엿는데 ㊂三等二十五圓四十錢、一等白米十圓二十錢

堂島前場漸落
【大阪電話】拂下接迫을作하야 少量賣物로 漸落의軟調를 보엿는데 賣方은東京側中東側、鮮側、地場、日前側 買方은堀遠側、地場株式側、三品側、九州側等이엇다

今日財界(三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京城정白米一石 [illegible]
正租(仁川) [illegible]

金
朝鮮一五圓入價 [illegible]
市中一匁入價 [illegible]

株 (單位錢)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商品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고무現貨 [illegible]

[Market quotation tables (金融、海外經濟、對外爲替、金貨入價、大阪金利、米穀、京城正米、仁川正米、大阪正米標準價格、京城雜穀、仁川大豆、商品、京城棉系布市勢、京城絹布、日本麥粉市勢、치카고期麥、錦油冲價、滿洲商品、大連特產時勢、錦擇粕冲價、東京現株、東京短期東新、東京短期取組、大阪短期、新取短期賣買高、株式、朝取期米、朝鮮內各地期米、朝取賣買高、大阪期米、大阪綿系、大阪市中在米高、日本各地期米、東京期米、大阪棉花、大阪人絹、橫濱生絲、大阪砂糖、海外砂糖、入放長期): figures [illegible]]